

종교 개혁과 대학교육 개혁, 그리고 교양교육*

- 개혁자들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이지성 (루터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종교개혁의 현장, 그리고 교육 개혁의 필요성

1. 개혁의 노정, 루터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도
2.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편
3.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 (Studia Humanitatis) 중심 교양과정 개편의 특징과 의미

III. 볼로냐 프로세스 시대에 돌아보는 종교개혁자들의 교육과정 개편의 의미

1. '유용한 기계'를 인증하는 현 대학 교육
2.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 루터의 신학 방법론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9.02>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루터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 ABSTRACT •

Reformation and General Education: Based on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Reorganization of Wittenberg University

Lee, Jie-sung (Luther University)

Luther's Reformation was not simply restricted to the reformation of churches, but involved the reformation of the general social systems, with a special emphasis on 'educational reformation.' This study particularly concerns one of his elaborate efforts for educational reformation: the curriculum reorganization of German universities, including University of Halle-Wittenberg. This study will also focus on Philip Melanchton, called 'Praeceptor Germaniae (teacher of Germany),' who played a leading role together with Luther in the Reformation and educ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research compares Reformers with Martha Nussbaum as it focuses on her educational viewpoint which emphasizes the incessant reading and learning of humanistic texts and works in that they are similar each others as such that they are of one accord in thinking that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a personal dimension but be oriented to community, and that education should be the activities of listening to and learning the truth with struggle and agony and unceasing sharing. In light of the education intended by the reformers of 500 years ago, this paper reconsiders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 that pursues 'what needs to be learned,' rather than 'what must be done' or 'what can be done.'

Key words: Martin Luther, Philip Melanchton, Reformation, General Education, Wittenberg University, Studia Humanitatis, Martha Nussbaum

I. 들어가는 말

500여년전, 독일 시골 한 구석에 살던 평범한 수도사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로마에 폭풍을 일으킬 줄, 난 상상조차 못했다.”¹⁾ 라는 자신의 고백처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붙여 놓은 한 장의 글은 인류 역사에 활화산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 루터의 95개 논제 게시 사건은 천년이 넘도록 교회와 책에 포로처럼 갇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장을 풀어 버린 개혁의 서막이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애초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 뿐 아니라 종교, 사회, 정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²⁾ 그는 기독교의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와 계몽주의, 인권 사상에 토대가 되는 통찰을 제시했다. 특히 그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단지 현대 독일어 발전 뿐 아니라, 교육을 소통의 측면에서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직업 소명이라는 윤리관부터 음악

1)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학자들과 토론을 제안하기 위해 그 종이를 성 문에 게시했다. 그는 자신의 95개 논제를 기초로 그 지역 학자들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논제들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논제들이 인쇄되면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하게 급변하게 되었다. 한 달도 안 되어 독일 전역에, 그 다음에는 얼마 안 있어 전 유럽에 95개조 논제가 유포되었다. 그것은 이미 독일 시골 대학의 답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번져 가게 되었다. 루터는 교회를 변화시키거나 교회를 개혁하고자 작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그런 원대한 포부는 없었다. 그가 바라던 것은 단지 터무니없는 면죄부 문제와 테첼 같은 면죄부 장사꾼들로부터 교회 교인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Joel Biermann, *A Man Named Martin Part 1*, 이지성 옮김, 2016, St. Louis, Lutheran Hour Ministries, Section 1, Biermann interview 참고.

2) 전 세계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깊고 풍부하게 루터를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독일 개신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의 활동은 매우 오랫동안 기획되고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인정할 만 하다. 특히 독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준비된 Luther Decade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제에 대한 자료들을 <https://www.luther2017.de/de/2017/lutherdekade> 사이트에 제공해 왔다.

과 회화를 비롯한 예술까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삶의 영역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올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는 또 한번 루터 시대를 맞이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의 경우,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2008년부터 2017년을 ‘루터 십년 Luther Decade’을 선포하고 매년 지금, 여기에서 루터의 다양한 흔적을 찾아 그것을 표적으로 삼는 노력을 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종교개혁이 500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루터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Luther Decade’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단순한 교회 사적 사건을 넘어 본질과 영향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인다.³⁾

본 논문은 이러한 루터의 공적인 영향력을 되새겨 보는 일환으로 Luther Decade 2010년의 주제이기도 했던 ‘종교개혁과 교육’에 관심을 두고 출발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개혁을 넘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이었고, 무엇보다 ‘교육 개혁’이기도 했다. 개혁이라는 것이 단지만 두가지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면, 루터가 시도한 교육이 바로 그 ‘개혁’이었다. 즉 루터는 단순히 교육의 한 부분을 새롭게 시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교육 생태계와 지형도 자체를 변화시키고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⁴⁾ 루터와 교육의 연관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바 있다. 많은 사람들

3) 독일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위원회 자문신학자들은 Luther Decade의 토대가 되는 공동 연구물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위한 전망”을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는 Luther Decade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적 문화적 영향과 현대사적 의미에 대한 기초가 되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 선언문에 대해서는 국내 권진호 교수가 심도있게 연구했다. Cf. 권진호,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위한 진단과 전망,”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0집 (2015), (서울: 한국교회사학회, 2015) 9~40.

4)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회개혁』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7), 15.

은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비롯해서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 등 최초로 교회교육 교재를 펴내고 보급한 점, 가정을 교육하는 곳으로서 의미를 부여한 점과, 소수 귀족과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학교를 모든 시민에게 개방한 점 등을 들어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 통로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본 논문 또한 루터의 교육에 대한 시도가 교육 개혁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맥락 속에서 출발한다. 특히 그의 교육 개혁의 시도 중 공을 들였던 한 부분, 비텐베르크 대학을 비롯한 독일 대학들의 교육과정을 개편한 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루터의 동반자, 적어도 종교개혁과 교육이라는 무대에서는 루터와 동등하게 주인공 역할을 했던 ‘Praeceptor Germaniae’(독일인의 교사)라고 불리는 멜란히톤(Philip Melanchton)을 함께 조명할 것이다.

멜란히톤은 151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헬라이어 교수로 부임해 와서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루터와 늘 함께 했다. 당대 최고로 인정받던 인문주의자 로이힐린의 외조카인 멜란히톤은 루터를 만날 당시 이미 21세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부임한 인문학과 헬라이어에 천재성을 보인 학자였다. 루터는 성서 언어의 중요성과 인문학적 사고를 멜란히톤에게 배웠고, 멜란히톤은 루터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배우면서 그 둘은 종교개혁의 흐름 동안 그 무엇보다 성서가 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대학의 교육 개편을 시도하게 된다.

이들 개혁자들의 교육 개혁에 대한 열정은 종교개혁의 길목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에 매우 치열하고 구체적이었다. 왜 그들은 소용돌이처럼 몰아치는 개혁의 시절에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에 매진했던 것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500년 전의 문제

의식이 지금, 우리의 교육의 상황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II. 종교개혁의 현장, 그리고 교육 개혁의 필요성

1. 개혁의 노정, 루터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도

1517년 면죄부 논쟁으로 시작된 루터와 로마 가톨릭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해 졌다. 단지 면죄부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교회의 온갖 쓰레기가 뒤엉켜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루터는 실한 옷을 잡았는데 털 스웨터 한 벌이 너덜너덜해 지기 시작한 것이다. 루터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했다.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자 교회는 당황했고 사람들은 환호했다.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아우구스부르크 청문회를 겪기도 했다. 그리고 3년 만인 1521년 결국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파문 경고 교서' 때문에 청문회 보름스 제국의회에 불려가게 되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보름스에 입성했다. 당시 루터는 독일 전역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어있었다. 한편으로 독일의 화폐가 알프스를 넘어가는 것을 막은 인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 안의 상황은 엄중했다. 루터는 파문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저작들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자신이 주장한 '십자가 신학'을 버릴 수 없었고 의회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 댓가는 가혹했다. 루터는 이제 신분도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후원자였던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시킨다.

그런데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 있던 동안, 비텐베르크로부터 불안한 보고들을 듣기 시작한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였던 안드레아스 칼슈타트는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격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 예복을 벗어 던지고 사냥꾼 차림으로 비텐베르크 교회 연단에 나타나서 '내 하녀가 신발을 잃어 버렸네' 라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해 대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외치고 다녔다.⁵⁾ 벽돌이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통해 날아들었다.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교회개혁이었고, 그는 중세 교회의 전통 중 고수해야 할 것들을 가능한 한 지켜내고자 했다. 단지 성서와 모순되는 것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지론이었다. 바르트부르크에 숨어 있던 동안 루터에겐 남은 생애 동안 싸워야 할 대상이 둘로 늘어났다. 즉, 종교개혁과 함께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아간 급진주의자들과, 그리고 그대로 멈춰있는 가톨릭과의 싸움이었다.

게다가 그 즈음 1525년, 독일에서 농민 폭동이 일어났다. 이는 루터에게 특히 고통스런 일이었다. 물론, 중세시대 농민들은 제후와 귀족들에게 무자비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혁명은 이미 예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의 방향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혁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농민들 외에도 이미 기사들의 집단반란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신성로마제국, 제후 및 봉건지주제도에 대항해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루터는 이 모든 것을 중단시켜야 했다. 이런 것이 루터의 전형적인 방식이었고, 그는 전체 계획을 망치고 있는 모든 대립의 극단들 사이에서 중도 노선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1526년, 루터는 새로운 교회들이 조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중세 교회에 개혁의 광풍이 불고 있었고 루터는 교회를 다시

5) <https://reformation500.csl.edu/bio/andreas-bodenstein-von-karlstadt/> *Reformation500* is an online resource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Quincentenary of the Reformation in 2017 managed by Concordia Seminary, St. Louis. 참조

새롭게 세워야 할 짐을 안게 된 것이다. 그는 기초부터 다시 세울 작정을 했다. 새롭게 등장한 이 교회는 에크가 “루터를 따르는 놈들(Lutheran)”이라고 폄하했던 그 교회이다. 루터는 그 교회에서 독일인을 위한 예배의식을(German Mass) 만들어 사용하도록 했다.⁶⁾ 실제로 그것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던 전례(liturgy)를 매우 보수적으로 다시 쓴 것이다. 루터가 새롭게 구성한 예식서에 따라서 일반 신자들은 성찬의 두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모두 받게 되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관례에서 금지된 일이었지만, 일반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혁명적 사건임이 분명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시작된 종교 개혁의 동기와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한 교회들의 무지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루터는 모든 신자들이 평등한 만인 사제직을 주장했지만 현장 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오해하고 오용하기 시작했다.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면서 율법은 무시당하고 세상의 질서마저 버려졌다. 성직자들은 무지하다 못해 방종하고 게으르기까지 했다. 신자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게 되었다. 삶의 기준이 되었던 교회의 가르침은 이미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전 같으면 주교의 직무인 시찰과 권징을 통해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겠지만, 이 기능을 다시 로마 교황청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태의 심각함은 바이마르 영주 요한 프리드리히가 루터에게 “이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해결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루터는 1524년 8월부터 교회 방문을 시작해서 1525년과 1527~27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회 방문을 한다. 일종의 암행감찰이다.⁷⁾ 루터는 경악

6) <http://www.projectwittenberg.org/pub/resources/text/wittenberg/luther/germn-massorder Documents Illustrative of the Continental Reformation, from B.J. Kid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11, 193-202.>

하다 못해 참담함을 느낀다. 성직자들뿐 아니라 신자들은 모든 제약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의 징계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있었다. 성직자들 중에는 십계명도 모르고 어떤 이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조차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⁸⁾ 성직에 대한 소명은 고사하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자 술집을 차리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이 도처에 널려있었다.⁹⁾

루터는 시찰의 결과를 토대로 1528년 『작센 선제후국의 목사들에게 주는 시찰자의 교육 1528』¹⁰⁾이라는 지침서를 작성하고 필립 멜란히톤(비텐베르크 대학 신학자), 한스 폰 플라니츠(작센지역 법률가), 제롬 슈르프(비텐베르크대학 법학 교수), 아스무스 폰 하우비츠(비텐베르크 시의회 행정가로 추정)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조직하고 가망없는 목사들을 쫓아내고 교구 영지를 몰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루터는 시찰단 운영을 통해 환수한 재산으로 학교를 세웠다. 시찰단 활동을 통해 개혁자들은 교회 내부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¹¹⁾ 사실 그 이전부터 루터는 학교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독일 귀족에게 고함, 1520』¹²⁾, 『독일 모든 도시의 시의원에게 고함_ 기독교 학교를 세울 것을 호소하며, 1524』¹³⁾ 그리고 『어린이를 학교에 보낼 것을 호소하는 설교, 1530』¹⁴⁾가

7)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110.

8) Clyde L. Manschreck, *Melanchton: The Quiet Reformer* (New York: Abingdon Press, 1958) 136.

9)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110.

10) WA 26, 237~240.

11) James Kiltelson, "Learning and Education : Phase two of Reformation," *Die Dänische Reformation vor ihrem internationalen Hintergrund*, ed. by Leif Grane and Kai Horby Goettingen; 1990, 149~163.

12) WA 6, 404~465.

13) WA 15, 9-53.

14) WA 30II, 508~588.

있다. 특히 루터는 1528년 『대교리문답서와 소교리문답서』 또한 개혁자들의 교육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즈음 루터는 멜란히톤과 더불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양교육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한다. 개혁자들은 교육이 그들의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교육 개혁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2.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편

비텐베르크 대학은 1502년 설립되었다. 이 역사는 1485년 작센이 선제후령을 지배하는 에른스트파와 공작령을 지배하는 알브레히트파로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에서 에른스트파가 대학을 소유하기 원한데서 시작된다. 알브레히트파는 오래된 전통을 지닌 라이프니치 대학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른스트파 또한 대학 설립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1502년 10월 18일 작은 소도시 비텐베르크에 대학을 세우기로 하고 작센 지역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 일을 맡는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와 교양학부로서의 인문학부를 갖추고 시작되었다.¹⁵⁾ 이중 교양학부는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당시 중세의 전통에 따라 7개의 교양과목¹⁶⁾으로 구성되었는데

15)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비텐베르크대학에 대한 연구는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박준철 교수가 ‘휴머니즘과 독일 종교개혁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망하여 풍성한 사료를 제시했고, 강지원 교수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신학수업의 개혁”을 통해 신학 교수로서의 루터가 지향한 바른 신학함의 방향을 조명했다. 이상조 교수의 “16-17세기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교회에 미친 영향 연구”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대한 과거 역사부터 현재의 위상까지 구체적이며 전반적으로 연구했다. 이중 비텐베르크 대학의 역사에 대한 사료는 이상조 교수의 논문에서 재인용한다. 이상조, “16-17세기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교회에 미친 영향 연구,” 『장신논단』 제44집(2012), 114.

16) 7학예에 대한 이름은 5세기부터 일반 교양의 토대를 이룬 일곱가지 자유 학문을 부르면서 유래되었다. 7학예에는 문법, 수사학, 변증법, 수학, 천문학 등이 포함되며 신학, 법학, 의학을 위한 예비 학문의 역할을 해 왔다. 비텐베르크 대학이 운용한 7학예

문법, 작문을 포함한 수사학, 논리학 또는 변증학인 3개 과목(Trivium)와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 4개 과목(Quadrivium)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7) 특히 논리학, 도덕철학, 형이상학 및 자연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요 교재로 읽혔다. 이렇게 개설된 교양학부에는 스콜라 철학과 인문주의(18)적인 흐름이 공존하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그 대학을 당시 유럽을 뒤쫓던 인문주의자들이 시도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원했다. 당시 유럽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 회복 운동이었다. 그들은 ‘근본을 되살리자 Ad fontes’ 를 외치며 중세 동안 잃어버렸던 인간 정신을 되살리기를 원했다. 19)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관계²⁰⁾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역

과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멜란히톤이 정리한 비텐베르크 대학 정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관의 4번째 부분에 중세 및 종교개혁을 전후한 대학에서 가르친 7학예가 언급되어 있다. 7학예는 일반 학문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한 과목들로 오늘날의 대학 교양과정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7) *ibid.*

18) ‘인문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학문 Studia Humanitas’에서 유래된 말로, 고대 로마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 ~ BC 43)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문학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14세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다시 언급되었다. 그들은 무학 뿐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통해 수사학, 문학, 역사학, 철학 등을 공부하기 위해 이 단어를 다시 되살리게 되었다. 이와 연관된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세기 초 독일 교육 개혁자 니탐머에 의해서다. 그는 1808년 ‘박애주의와 인문주의 사이의 논쟁’이라는 글에서 실용적이고 화학적인 훈련에 대한 반대 하는 개념으로 ‘Humanismus’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손승남,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서울: 교육과학사, 2011), 143.

19) ‘근본’에 대한 해석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인문주의자들은 순수한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근본과 그 근거가 되는 고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그리스나 라틴 문학 작품 연구에 매진했다. 반면에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한 알프스 북부의 인문주의자들은 신 앞에 선 인간이 주요 관심사였다. 그들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성서, 교부들이 중심이 된 고전들을 통해 중세의 타락과 부패를 정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라틴어를 비롯한 헬라어 히브리어 등 고전어 교육이 매우 중요했다.

20)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박준철의 논문 “독일 종교개혁과 북방 인문주의,” 『역사학보』 제224집(2014), 12.

사에 분명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인문주의가 부패와 타락의 온상인 중세 교회를 목도하고 기독교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관계가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즉 우호적인 측면과 배타적인 측면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²¹⁾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인문주의에 정통했고, 그들의 학문 방식을 자신이 속해있던 대학에 적용시켜 왔다. 그의 성서 원어와 인문학 강조를 비롯한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은 1920년 『독일 귀족에게 고함』에 잘 드러나 있다.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도 동의하지만, 라틴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인문학 과목들을 가르쳐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일어로 충분히 배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언어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두 언어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주셨습니다.²²⁾

하지만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루터의 등장에 매우 고무적이었지만, 종교개혁이 급진적으로 선회되면서 중국에는 “루터교가 지배하는 곳에는 학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면서 루터를 적으로 돌려 세우기까지 했다. 이렇듯 이 둘의 관계는 단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인문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의 자율성과

21) James Tracy,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Reformation Europe: A Guide to Research*, ed. Steven Ozment (St. Louis: Center for Reformation Research, 1982), 33.

22) LW 44. 정원래, “멜란히톤에게서의 신앙교육과 인문교육,” 『성경과 신학』 제75집 (2015), 재인용.

합리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인문주의와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신을 중심에 둔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라는 출발은 같았지만 독일의 종교개혁이 급진적인 방향으로 접어 들게 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측 모두가 동일한 종착점에 도착한 것은 아니다. 북방 휴머니즘의 젊은 학자들 상당수가 루터파에 가담하기도 했고, 개혁자들은 일관성있게 인문주의를 수용하기도 했다.²³⁾

특히 이러한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둘 사이에서 환승역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비텐베르크 대학도 이러한 맥락에서 라틴어 뿐 아니라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대학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 성서 언어들 해석하는 단계를 공부해야 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 헬라어 교수가 필요해진 것이다. 프리드리히는 당시 매우 명망있던 인문주의자인 로이힐린에게 와 달라고 했지만, 로이힐린은 자신이 아닌 외조카 멜란히톤을 추천한다. 21살의 멜란히톤과 루터,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은 이렇게 만남을 시작한다. 당시 루터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추천했지만 결국 임용된 것은 멜란히톤이었다.

멜란히톤은 1518년 8월 비텐베르크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첫 부임한 교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150센티미터의 키에 허약해 보이고 목소리는 가늘고 약간의 언어 장애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교육 개선’²⁴⁾에 대한 취임 강연을 하던 3일 만에 그에 대한 조롱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당시 7개 교양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당시 대학에서는

23) LW 44.

24) 멜란히톤이 언급한 ‘대학 교육 개선’은 정확한 번역으로는 ‘청년 교육 개선’이다. 논문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 교육 개선’이라고 옮겼다. *Melanchtons Werke in Auswahl, III, Band: Humanistisch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R. Stupperich* (G. terisloh: G 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9), 29~42.

신학, 의학, 법학 등의 전공을 선택하기 이전에 7가지의 교양과목 단계를 거쳐야 했다. 멜란히톤은 이미 17세에 튀빙겐 대학에서 라틴어와 희랍어 교양과정 담당 교수이기도 했다.

나는 교회와 시청에서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하려는 사람은 철학, 즉 인문학 분야에서 이성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²⁵⁾

이 연설에서 멜란히톤은 학문과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하며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전어(희랍어와 히브리어) 습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스콜라주의자들의 주석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철학과 더불어 시, 특히 고전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²⁶⁾ 멜란히톤의 연설은 비텐베르크 대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의 라틴어, 헬라어 수업에 대학은 열광하고 고전어를 강조하고 원전 주석 보다는 원전 자체를 강조하는 인문주의 교육 계획은 루터마저 흥분하게 만들었다. 루터는 멜란히톤의 헬라어 수업에 참석했고 멜란히톤은 루터에게 신학을 배웠다. 후에 멜란히톤은 “나는 그에게서 복음을 배웠다”라고 고백한다.²⁷⁾

멜란히톤은 부임하던 해부터 자신의 집에 학생들을 데려와 함께 공부

25) Melanchtons Werke, 30.

26) Melanchtons Werke, 33.

27) 마르틴 용, 『멜란히톤과 그의 시대』 Philipp Melanchton und seine Zeit, 이미선 옮김, 박준철 감수, (서울: 홍성사, 2013) 24. 본 논문은 멜란히톤과 루터의 신학적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하지 않는다. 사실 이들의 관계가 항상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신학적 차이와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 등 많은 분쟁이 있었다. 현재 독일의 필립 멜란히톤 연구자 중 한명으로 오그나브뤼크 대학 역사신학 교수인 마르틴 용은 “루터가 사망한 후에 멜란히톤은 자신을 “모욕을 당한 거의 노예 신분”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면서 “멜란히톤이 이렇게 까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루터와 함께 했던 이유는 ‘종교개혁을 향한 열망’ 그것 하나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24~25.

하는 작은 학교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읽기, 쓰기, 산수, 라틴어와 기도를 배웠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서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멜란히톤은 대학 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수업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 학습 담당 교수를 배정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번번이 그의 계획은 실패했었다. 학생들은 지나친 간섭을 싫어했고 교수들은 업무가 많아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예산이 드는 이런 일들을 학교 당국이 달가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멜란히톤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1520년 무렵 비텐베르크 대학에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루터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루터의 강좌를 듣는 수강생이 400정도 있었는데 멜란히톤의 수강생은 500~600명에 이르렀다.²⁸⁾

멜란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과과정 개편을 시도하기 전, 1518년 대학은 이미 한차례 교과과정 개혁을 추진 한 바 있었다. 루터가 주도했고 일부 교수들이 동참했던 개혁이었다. 이 첫 번째 개혁은 신학 수업이 아니라, 신학을 수학하기 이전에 거치는 교양과정에 대한 개혁이었다. 여기에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더불어 지역의 제후 프리드리히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전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관에는 “스콜라 학자들의 교수 방법은 온전히 장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즉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인문주의는 학문의 주변부에 있었고 스콜라 철학이 중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문주의자가 아닌 루터가 인문주의 배양을 독려하며 커리큘럼 개편에 앞장선 것이다. 루터는 수사학 eloquentia 와 고전문학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종교적인 목적, 특히 원어를 통한 성경 연구를 위해서 인문주의를 옹호한 것이다. 이러한

28) 옴은 멜란히톤의 강의에 수강생이 많았던 이유가 루터는 신학을 가르쳤지만 멜란히톤이 교양 과정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멜란히톤과 그의 시대』, 52.

노력 때문에 비텐베르크 대학 최초로 수사학 강의가 개설되고, 헬라이어와 그리스어 교육이 시작, 멜란히톤을 초빙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 (Studia Humanitatis) 중심 교양과정 개편의 특징과 의미

멜란히톤이 함께 참여한 교과과정 개편은 1520년 교양학부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착안에서 서 시작된다. 루터와 멜란히톤이 본격적으로 착수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은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²⁹⁾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가 성직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제대로 습득하고 가르치는 일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멜란히톤은 헬라이어와 히브리어 어학적 지식이 성경 내용을 해석시키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주석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어로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다음 단계는 정확하게 이해된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개혁자들은 이를 위해 수사학을 강조하게 된다. 특히 멜란히톤의 성직자들을 위한 수사학 교육에 대한 강조는 피코(Pico della Mirandola)를 공박한 글에 잘 나타나있다.³⁰⁾ 그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전달할

29)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서양사론』 제52집(1997), 15. 멜란히톤의 독일 대학에서의 위상을 중심으로 박사 논문을 쓴 박준철 교수는 이 논문에서 멜란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개편했고 이것이 어떻게 독일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를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박 교수의 학위 논문인 “Philip Melancthon’s Reform of German Universities and Its Significanc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naissance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Ohio State Univ., 1995)를 통해 멜란히톤의 교육개편안에 관한 귀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30) Quirinus Bereen, trans., “Melancthon’s reply to G. Pico Della Mirandola” in

때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통상적인 말투를 써야 한다면서, 스콜라 학자들과 그들에 대한 것만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문법적으로 큰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문장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괴한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멜란히톤은 성직자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수사학적 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사학에 대한 멜란히톤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수사학을 무시하던 성직자 교육 방식에 하나의 저항³¹⁾이며 현실 목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종의 인문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학문은 ‘역사학’이다. 멜란히톤은 1539년 번역 출판된 한 연대기의 서문에서 “역사학은 그릇된 교리와 잘못된 교회의 제도와 관행을 분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³²⁾

멜란히톤은 7개의 교양과목³³⁾을 강의했는데 당시 교양학부를 마친 뒤 신학을 더 공부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개신교 목사는 석사학위는 취득했지만 신학 학위는 없었다. 따라서 성직자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교양과정은 마지막 학위과정인 경우가 많았다.

멜란히톤의 교육 방법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그는 읽기 *Lectio*, 모방 *Imitatio*, 연설 *Declamatio*, 수사학 *Eloquentia*³⁴⁾을 제안하는데 그중 수사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 vol. 13 (1952), 413~426. 박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계,” 15에서 재인용.

31) “Melanchton’s reply to G. Pico Della Mirandola,” 422.

32)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16.

33) 당시 교양학부 커리큘럼은 어학, 수사학, 논리학의 3과 (*trivium*)과 산수, 음악, 기하학, 천문학, 기타과목의 4과(*quadrivium*)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4) 멜란히톤의 *eloquentia*는 국내에서 주로 ‘용변술’ ‘달변’ ‘수사학’ 등으로 번역된다. 멜란히톤의 *eloquentia*와 수사학이 동일시 되기는 어렵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본뜻과 가장 가까운 ‘수사학’으로 번역한다.

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정확한 단어와 문법으로 명료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을 동반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즉 Eloquentia를 위해서는 우선 읽기가 필수적이며, 고전과 성서가 그 텍스트로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으로 성서읽기와 고전읽기는 거의 매일 학생들에게 과제로 주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모방’을 학습하게 되었다.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고전 작품을 ‘모방’imitatio 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 모방은 일반적인 모방으로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을 문법과 수사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모방하는 것이고 2단계 모방은 구체적인 작가 키케로의 글을 종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었다.³⁵⁾ 3단계는 낭독으로, 멜란히톤은 중세 신학 교육의 대표적 모델이었던 토론과 논쟁 대신 라틴어로 시와 연설문을 낭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낭독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은 철학, 역사, 언어, 신학, 자연과학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예화 적용’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우화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이런 모든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었다.³⁶⁾ 키케로의 작품들을 모방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라틴어 연설문을 작성하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 작가들의 작품, 호메로스(Homer),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 그리고 플루타르크(Plutarch) 를 제안했다. 특히 플루타르크의 문장들은 윤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인정했고, 데모스테네스는 언어 구사가 탁월

35) 멜란히톤은 단순한 표절이나 단순모방대신에 인문주의자들이 예술가 기질의 자유로운 방식을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는 것들만을 모방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키케로와 퀸틸리안을 모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자신이 흠모했던 에라스무스는 모방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박영희, 이서정, “멜란히톤(P. Melanchton)의 학문 및 정치적 활동 - 종교개혁 시기를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33집(2014), 12.

36) 박영희, 이서정, “멜란히톤(P. Melanchton)의 학문 및 정치적 활동 - 종교개혁시기를 중심으로,” 13.

한 웅변가로, 호메로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우아한 문장과 윤리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자체로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버질(Virgil)을 비롯한 라틴계열시인들도 거론하는데 그들의 작품 뿐 아니라 시인의 삶의 태도를 통해 진정한 학자로서의 자세를 익히기를 권했다.³⁷⁾

또한 멜란히톤의 인문주의 교육 방법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수사학’에 대한 강조이다. 그는 정확한 성경 이해는 어학적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며, 효율적으로 그 이해한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수사학이 학문의 예비 단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수사학을 간단한 유익한 칭찬 정도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수사학을 통해 ‘어떤 것이든 자신의 생각으로 분명히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렷한 정신으로 인간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능해 진다고 한다.³⁸⁾ 그가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수사학 자체의 학문적 가치 보다는 이후 전공하게 되는 학문들, 특히 신학에 이를 적용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예비 학문으로서 수사학을 강조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끊임없이 이 고상한 학문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없이는 나머지의 학문들이 불행하게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합니다.³⁹⁾

이러한 교육 체제의 완성을 위해서 멜란히톤은 7개의 교양 교과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그가 제시한 과목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

37) 박영희, 이지성, “멜란히톤(P. Melanchton)의 학문 및 정치적 활동 - 종교개혁시기를 중심으로,” 12.

38) Melanchton, *Encomion Eloquentiae*, 57-58.

39) *Encomion Eloquentiae*, 62.

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수학, 키케로의 수사학, 베르길리우스와 퀸틸리아누스, 로마사, 플리니우스(자연의 역사 저자)이다. 그리고 그 과목들을 개설하기 위한 담당자 열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은 폐지되고 라틴어, 헬라이어, 히브리어가 교양학부의 정규 과목이 된 점과 키케로의 수사학이 추가되고 비텐베르크 대학 사상 처음으로 역사학과 문학이 강단에서 교육되는 획기적인 변화였다.⁴⁰⁾

하지만 교수 열명 채용에 대한 부분은 대학의 재정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의 논리적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학위 취득의 필수 과정으로 개설되었던 토론 수업을 폐지 시키고 수사학적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 연설을 신설했다.⁴¹⁾

이후 1520년부터 30년까지는 주목할 만한 대학 교육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첨예한 종교개혁의 위기 국면이 지나고 1533년 개혁자들은 신학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편 교과 과정을 개편한다. 이 개편을 통해 스콜라 철학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신학과 교수들은 “단순한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독교 교리의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가르치자는 멜란히톤의 Loci 교수법을 신뢰를 바탕으로, 성서 중심의 인문주의 교수법이 융합된 커리큘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536년 드디어 교양, 법학, 의학, 신학부의 교과과정이 모두 개편되었다. 1536년 5월 5일 채택된 이 정관은 대학의 모든 행정과 학사 업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1520년 멜란히톤이 시도했던 개편 계획안과 거의 동일한 개편이었다. 드디어 교양 학부는 16년 만에 10명의 교수를 채

40)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24-25. 재인용

41)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25.

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틴어, 히브리어,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논리학, 시, 수사학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역사학 대신, 스튜디오 후마니타스의 중요 학문인 윤리학이 개설되었다. 플리니우스의 자연의 역사 과목 대신 수학이 개설되었고, 라틴어는 단순한 문법이 아닌 극작가의 문학작품을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육 과정 개편은 독일 각 지역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다. 많은 대학들이 해당 지역이 루터파에 편입되면 멜란히톤에게 커리큘럼 개편을 의뢰하고 비텐베르크를 모델로 삼아 인문주의를 각 대학에 제도적으로 확립시켰다.

III. 불로나 프로세스 시대에 돌아보는 종교개혁자들의 교육과정 개편의 의미

1. '유용한 기계'를 인증하는 현 대학 교육

그때도 지금도 체감 온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혁명의 시대이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스바움의 지적처럼 세상은 매우 심각하지만 암처럼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조용한 위기'의 상황⁴²⁾이다. 교육은 경제적 가치와 국가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학생을 '유용한 기계'로 양성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이익 창출을 위해 국가는 지속적인 경쟁력이라는 명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쓸모없는 것들을 도외시하고 교육에 앞장 서 가고 있다.

42) Martha C. Nussbaum, *Not for Profit*, 국내에서는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우석영 옮김, 서울: 궁리, 2011)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동일한 역자에 의해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되었다(본 논문에서는 NFP로 표기하고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번역본의 쪽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NFP, 23-24.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유럽에서는 ‘블로냐 프로세스’라는 대학 제도 표준화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유럽 전체를 하나의 사회 경제적으로 통합시키려는 꿈을 다져온 유럽연합이 교육 분야에 발을 디딘 것이다.

블로냐 프로세스는 1999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 이탈리아 블로냐에서 모여 2010년까지 단일한 대학 제도를 설립하여 유럽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며 만든 프로그램이다.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도 참여해 회원 수가 47개국으로 늘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국제교육협회는 블로냐 프로세스가 미국 대학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학들은 구조적으로 학사 제도를 표준화 시켜갔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인 대학 교육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차원에서 대학들의 교육 수준을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평가받아야 블로냐 프로세스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유럽 각지에서 벌어졌다. 2009년 수만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유럽 각국이 펼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식 교육 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이 개혁 중 하나인 블로냐 프로세스였다. 이들은 교육을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고, 독일을 중심으로했던 유럽 대학의 가치는 사라지고 영국과 미국식 대학이 되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사실 블로냐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에서 각 대학들은 성과와 통계를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보다 취업률과 수익률 등 통계 수치가 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반값 등록금, 국립대 법인화, 대학의 기업화 등 대학교육이 자본과 구조 개혁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불어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들 중 상당수가 유럽의 ‘신자유주의식 개혁’과 매우 닮아있다. 실

제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국립대 법인화, 지방거점대 등의 형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 현장에서 교양 인문학이 마주하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0년 동안 교양 교육의 지평은 매우 확장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대학마다 교양학과, 학부, 교양기초교육원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평가라는 명분으로 구색 맞추기식 과목 개설과 업정을 빌미로 한 평가 방법으로 자기 검토투를 통한 비판적 사색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양 교육은 생경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새로운 잣대를 만나게 되었다. 바로 '핵심역량 (Competencies)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대학이 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인재 양성을 하라는 요구에 맞추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 고민한 결과, 도출된 개념이 '핵심역량'이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은 '지식'보다는 '자질'을 대학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은 대학이 교과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범교과적인 학습 영역 등을 포함해서 학생들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을 키워야 하게 된 것이다.

2.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 루터의 신학 방법론

'역량'이라는 개념은 대학 보다는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유엔이 '인간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주요 개념으로 적용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초, 중, 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교양 교육의 경우,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교양 전반을 평가하는 유일무이한 잣대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새롭게 대학이 구현할

인재상과 교육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학생의 핵심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대학의 핵심역량 교육은 ACE(학부교육선진화사업)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 대학은 자체적으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측정도구를 고안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고안했다. 교육부와 대학생 역량 진단업체인 K-CESA 또한 나름의 역량들을 제안하면서 대학의 핵심역량 선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⁴³⁾

대학들은 이러한 핵심 역량들을 자기 대학의 실정에 맞게 고르고 배열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차원에서 개발한 핵심역량이 각 학과, 전공 그리고 교양과목에서 모두 이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각 교과별로 핵심역량 중에서 일부 해당되는 핵심역량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교양 교육에 핵심역량을 적용하는 경우, 과목에 따라 가치가 충돌하는 역량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스바움은 ‘역량’에 대한 재 규명을 시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우선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역량’을 competency가 아닌 capability 로 해석하기를 제안한다. capability는 개인의 능력 capacity 내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⁴⁴⁾ 이 분석

43) 교육부는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를 K-CESA는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활용 역량/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역량, 종합적 사고력’을 핵심역량으로 제안한 바 있다.

44) <http://www.differencebetween.net/language/words-language/difference-between-capability-and-competency/> 여기서 capability는 아직 개발되지 않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으로, 반면에 competency는 어떤 기술이나 작업 수행능력이 향상된 상태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은 교육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차이이며 ‘역량 중심’ 교육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이다. 그녀는 자신의 역량을 ‘내적 역량’이라고 부르면서 그 연구의 뿌리를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스토아 학파, 그리고 아담 스미스와 밀에서 찾고 있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⁴⁵⁾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나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의 교육에 대한 생각은 인간을 하나의 가능태로 *Dunamis*로 파악한 데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누스바움은 역량 연구의 뿌리 중, 특히 스토아 학파의 키케로에 주목한다. “다른 사람을 멋대로 지배하며 인간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고 함부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주장의 저변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개념이 역량 접근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스바움은 이러한 역량은 그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계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녀가 생각하는 ‘역량 *capability*’이 지금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량 *competency*’과 단선적으로 비교되면서 논의되기는 어렵다. 그동안 ‘역량’ 논의가 산업과 경제 등 ‘발전문제’를 연구하는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던 만큼 학계간의 선 연구와 교류 없이는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스바움이 계발 가능한 여러 역량 중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사회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공정한 사회에서 육성하고 지원해줘야 하는 역량’을 고민한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

45) Martha C. Nussbaum, 『역량의 창조』 한상연 옮김, (파주: 돌베개, 2015), 150.

한다. 그녀는 ‘역량 계발’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노력이 전제될 때 시작되는 것이며,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① 생명 Life ② 신체 건강 bodily health ③ 신체 보존 bodily integrity
④ 감각, 상상, 사고 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s _ 상상하고 사고하고 추론하며, 글을 읽고 쓰며 적절한 교육으로 교양을 쌓는 역량 확보, 이를 위해 종교, 문학, 예술이 필요함 ⑤ 감정 emotions ⑥ 실천 이성 practical reason 선의 관념을 형성하며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 ⑦ 관계 affiliation _ 인종, 성별, 성적지향, 민족 배경, 종교를 아우르는 차별 배제 ⑧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 ⑨ 놀이 play ⑩ 환경 통제 control over one's environment⁴⁶⁾

누스바움이 제시한 ‘핵심 역량’의 목록들에는 지금 대학이 요구받고 있는 역량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학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목록은 그녀가 제시하는 열가지 항목 중 하나나 두 개 정도만을 파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 기계적 도구로 전락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그 목록은 또 하나 덜어져 들게 될 것이다.

누스바움은 이 열가지 역량이 중첩적이고 상황에 따라 조율될 수는 있지만 필수 불가결한 핵심 역량이며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을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소중한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누스바움은 교육이 그런 존재로 인간을 바라볼 때,

46) Nussbaum, 『역량의 창조』, 48-50 참조.

인간은 비판적 사고 능력,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계발되어야 한다”⁴⁷⁾고 주장하는 것이다.

누스바움의 역량에 대한 재해석, 즉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교육’이며, 교육을 통해 이러한 핵심역량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계발될 수 있다는 지적은 매우 적실하게 다가온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전을 읽고 문학 작품과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끊임없이 인문학적 텍스트와 작품들을 읽고 익히는 교육, 그녀의 교육관은 500년전 개혁자들, 특히 멜란히톤의 교육관과 닮아있다.

멜란히톤은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인문주의자들로 부터 매몰차게 무시를 당하면서 끝까지 인문주의를 놓지 않았다. 인간을 이해하는 정 반대의 입장 속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개혁자들이 인간이 교육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멜란히톤은 스콜라 신학자들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스콜라 신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의 논리학과 자연학을 고수하면서 수사학과 역사학으로 교양 과목을 편성하는 균형을 택했다. 키케로의 작품을 학습 방법인 ‘모방’에 적용하는 과감함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개혁자들이 교육 개혁의 방법으로 인문학, 즉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를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확고한 교육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르틴 루터가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 ‘Oratio, Meditatio, Tentatio’ 라는 세가지 개념을 통해 제시했다. 루터가 비록 신

47) Nussbaum, 『역량의 창조』, 184-185.

학이라는 학문으로 한정하고 방법이라는 도구적 이름으로 제안했지만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교육이 그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로 다가온다.

루터의 이 세가지 교육관은 누스바움이 교육을 통해 품고 있는 이상과 일정 부분 공통적인 면을 발견할수 있다. 무엇보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과 루터의 신학 방법론은 교육이 한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닮아있다. 적어도 이 둘은 잠세태로서의 인간이 진리를 듣고, 익히며, 갈등하고 고민하며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Oratio’는 기도를 뜻한다. 이것은 이성의 한계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의 방법이며 ‘Meditatio’는 말씀들을 들은 자로서의 인간이 밝아진 이성으로 성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는 자’로서의 방법, 그리고 ‘Tentatio’는 성서 연구를 통해 이해한 것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살아가게 되는 자세’이다. 루터는 이 세가지가 단선적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과업이 비록 경쟁과 비교, 그에 따른 개인적 성취일지라도, 루터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읽고, 고민하고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루터는 ‘내려가고’ ‘듣고’ ‘나누는’ 교육의 회복⁴⁸⁾을 숙제로 건네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은 그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어디로’ 내려가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48)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153.

사실 루터의 신학 속에서 교육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의 신학적 선언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전면에서 드러날 수 없었다. 루터 뿐 아니라 인문주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멜란히톤에게서조차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인간의 계발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가 아니다. 오직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믿어야 하는 내용’은 교육이 담당할 몫이 되는 것이다.

IV. 나가는 말

수도권에 위치한 기독교 대학인 L 대학은 지난해 교육목적과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교훈인 ‘기도의 사람 Oratio’ ‘학문의 사람 Meditatio’ ‘실천의 사람 Tentatio’를 핵심역량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Oratio는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 Meditatio는 ‘창의’ Tentatio는 ‘글로벌’ 역량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아우르는 코어 인재상으로 ‘섬김’이 제시되었다. 간혹 이러한 해석이 무리가 되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었다. 무엇보다 수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학생 개개인을 역량지수로 계산하며 수행한 과정들의 목록에 따라 향상된 것들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종교개혁 시대 인간이 쌓아 올린 공덕으로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이 면죄부 판매로 이어진 것 만큼이나 터무니없지만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공감 영역에는 반복되는 읽기와 쓰기 훈련만이 존재했고, 창의 역량에는 통계와 코딩 숫자가 가득했다. 글로벌 역량은 영어 점수와 다름 바 없었

다. 섬김 역량 또한 자원봉사 실적이 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양교육의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 competencies을 ‘무엇을 알아야 하는’ 역량 capability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내러티브 속에서 그 ‘무엇’을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교육의 가능성, 특히 교양 인문학의 입지는 조금은 풍부해 졌다.

개혁자들의 시대, 교육은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했다. 하나님을 알 필요도 알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던 시절, 루터는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과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외쳤다. 눈 앞에 놓여진 아무것이나 주어지는 것들을 닦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고 교육은 그 통로였다.

멜란히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인문주의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편 또한 바로 이 과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이며 모범이었다. 끊임없이 시대의 상황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무엇’을 제대로 알 수 있을지를 내려가서 듣고 나누는 실천이 개편과정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지금 사회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알아야 하는 그 무엇’을 향한 교육을 고민해 본다. 개혁자들의 교육 개혁의 의지를 보면서, 시장의 논리 앞에 선 대학, 그리고 교양 교육이 가야 할 길을 돌아 보았다. 이것이 어찌면 형식과 방법에 함몰되어 내용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교육을 향한 개혁자들의 메시지가 아닐까.

500년여년 전 교육을 통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개혁자들의 열망을 마주하며 지금, 여기의 교육을 돌아보았다. 개혁자들과 누스바움

이 지향하는 교육관, 특히 인문학에 대한 해석을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접근일까 망설였다. 문제의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시선만으로 그들의 교육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녀가 지향하는 교양 교육의 중요성과 역량의 재해석을 개혁자들의 논의에 얹어 현대의 의미와 연결해 보려는 작업 속에서 개혁자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더욱 견고하게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신학 개편을 중심으로 한 신학교육 방법론도 미진한 채 남겨 놓는다. 신학교육 방법론과 핵심역량을 연계하는 이 작업은 지속적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루터와 멜란히톤 저작물

Weimar Ausgabe, D. Martin Luthers Werke, kirtische Gesamtausgabe, Weimar: Boehlau, 1883ff.

Luther's Work, American Edition, edited by Jaroslav Pelican and Helmut T. Lehmann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ff.

Melanchtons Werke in Auswahl, III, Band: Humanistisch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R. Stupperich, G. terisloh: G 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9.

『신앙고백서』, 지원용 편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단행본

Sen, Amartya, 김원기 옮김,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갈라파고스, 2017.

Plass, Ewald M. *What Luther Says*, Concordia Publishing House, November 1, 2006.

Nussbaum, Martha C. *Not for Profit*,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우석영 옮김. 서울: 궁리, 2011.

_____. 한상연 역, 『역량의 창조』. 파주: 들배계, 2015.

Manschreck, Clyde L. *Melanchton: The Quiet Reformer*, New York: Abingdon Press, 1958.

Kiltelson, James M. *Luther the Reformer: The Story of the Man and His Career*. New York: Fortree Press; New Edition edition, January 1, 2003.

Martin, Jung. Philipp *Melanchton und seine Zeit*. 『멜란히톤과 그의 시대』. 이미선 옮김. 박준철 감수. 서울: 홍성사, 2013.

Bainton, Roland H.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Plume, April 1, 1995.

손승남.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서울; 교육과학사, 2011.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회개혁』.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7.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 연구 논문

James Killtelson, "Learning and Education : Phase two of Reformation," *Die Dänische Reformation vor ihrem unternationalen Hintergrund*, ed. by Leif Grane and Kai Horby Goettingen; 1990

James Tracy,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Reformation Europe: A Guide to Research*, ed. Steven Ozment, St. Louis: Center for Reformation Research, 1982.

강치원, 2004, "루터의 종교개혁과 신학수업의 개혁," 『신학지평』 제17집(2004), 281-301.

박영희, 이서정, "멜란히톤(P.Melanchton)의 학문 및 정치적 활동 - 종교개혁시기를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33집(2014), 31-62.

박준철, "Philip Melanchton's Reform of German Universities and Its Significanc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naissance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Ohio State Univ., 1995.

박준철, "독일 종교개혁과 북방 인문주의," 『역사학보』 제224집(2014), 371-395.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서양사론』 제52집(1997), 1-31.

이상조, "16~17세기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교회에 미친 영향 연구," 『장신논단』 제44집(2012), 111-137.

정원래, "멜란히톤에게서의 신앙교육과 인문교육," 『성경과 신학』 제75집(2015), 145-175.

• 온라인 소스

J. Biermann, A Man Named Martin Part 1, 이지성 옮김, Lutheran Hour Ministries, 2016.

<https://www.luther2017.de/de/2017/lutherdekade>

<https://reformation500.csl.edu/bio/andreas-bodenstein-von-karlstadt/>
Reformation500 is an online resource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Quincentenary of the Reformation in 2017 managed by Concordia Seminary, St. Louis.

<http://www.projectwittenberg.org/pub/resources/text/wittenberg/luther/germnmass-order> Documents Illustrative of the Continental Reformation, from B.J. Kid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11

70 『기독교사회윤리』 제39집

<http://www.differencebetween.net/language/words-language/difference-between-capability-and-competency/>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7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03일

• 국 문 초 록 •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개혁을 넘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이었고, 무엇보다 '교육 개혁'이기도 했다. 특히 본 연구는 그의 교육 개혁의 시도 중 공을 들였던 한 부분, 비텐베르크 대학을 비롯한 독일 대학들의 교육과정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교육이라는 무대에서는 루터와 동등하게 주인공 역할을 했던 'Praeceptor Germaniae'(독일인의 교사)'라고 불리는 멜란히톤(Philip Melanchton)을 함께 조명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개혁가들의 교양교육 개편 과정에 주목하면서, 현대 사회의 교양교육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교양교육에 대한 마사 누스바움의 견해를 함께 제시하면서 비교하고자 한다. 교육이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며 진리를 듣고, 익히며, 갈등하고 고민하며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교육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본 논문은 500년전 개혁자들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통해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알아야 하는 그 무엇'을 향한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한 작업이다.

주제어: 마르틴 루터, 필립 멜란히톤, 종교개혁, 교양교육, 비텐베르크대학, 인문교육, 마사 누스바움.
